견고한 경제지표에 투심 회복, 반도체·성장주 중심 상승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전쟁 공포보다 미국 경기와 반도체 펀더멘탈 신뢰

- 미 증시는 DOW +0.49% S&P500 +0.78% NASDAQ +1.29% 임의소비재, 기술주 중심 상승
- WTI $75.7(+1.5%).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송 지원 발표, 이란의 CIA 물밑협상 접촉 보도 등으로 전쟁 장기화 우려 완화되며 유가 급등세 다소 진정, 다만 장후반 갈수록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
- 공포심리 완화되며 펀더멘털 신뢰 기반 빅테크 중심으로 반등 뚜렷. NASDAQ 은 주간수익률 플러스(+)전환하며 빠른 회복력
- 다만, 미국, 이란 모두 공식 입장상 강경 대응중. 현재 총 12 개국이 분쟁 영향권. 튀르키예도 NATO 회원국 중 처음으로 방공망에 들어온 이란 미사일을 요격

견조한 경제지표가 끌어올린 투자심리

- 2 월 ISM 서비스업 PMI 56.1 전월·컨센 상회. 세부항목으론 투자자들이 주목한 물가지표 66.6→63.0 컨센 하회하며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. 신규주문 53.1→58.6, 고용 50.3→51.8 등 대체로 견조
- 2 월 ADP 민간고용 변화 +6.3 만명 전월·컨센 상회, 지난 7 월 이후 최대폭 증가
- 연준 베이지북은 최근 7 주간 미국 경제는 견조(약간~보통 수준 성장률)하다 평가. 고용상황도 대체로 안정적으로 평가되었고, 관세 관련한 물가 상승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. 관련해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주중 글로벌관세 15% 상향 계획 밝히며 일관된 관세정책 유지 의지 피력
- 한편,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를 차기 연준의장으로 공식 지명

위험회피→위험선호 돌린 반도체 및 가상자산 낙관 전망

- UBS 는 마이크론이 공개한 새 메모리칩은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평가. 외부 변수(이란전쟁)에 따라 과매도된 마이크론 주가 반등은 메모리 사이클의 조기 부활을 의미한다고 평가
- 한편, 비트코인 7.3 만달러 상회(+7.5%). 트럼프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(클래리티법) 지지 영향.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상원 계류중인 상황에 은행권 공개 비판. 11 월 중간선거 앞두고 클래리티법 정책 성과 내세우려는 의지로 해석

특징주: 메모리 업종 강한 반등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U	마이크론	+5.6%	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함을 확인하며 전일 급락했던 메모리 업종 강한 반등. 동사의 AI 데이터센터 최적화 차세대 메모리 고객사 샘플 출하 개시 소식에 주목
NVDA	엔비디아	+1.7%	젠슨 황 CEO는 오픈AI에 대한 $100B 투자 기회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, 최근 단행한 $30B 규모의 투자가 마지막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. 오픈AI가 향후 IPO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 밝힘
INTC	인텔	+5.8%	CEO가 주로 내부용으로 국한했던 18A 제조 공정을 외부 고객사들을 위한 잠재적 서비스로 인식하기 시작함을 밝힘. 매출 기대감이 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
COIN	코인베이스	+14.6%	트럼프 대통령이 CEO와의 비공개 면담 이후, SNS를 통해 은행권에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력 공개 압박.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대 및 비트코인 랠리에 주가 상승
MRNA	모더나	+16.0%	백신 특허 소송 합의금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 $950M로 결정, 불확실성 해소되며 주가 상승